

지역 소식통

부안군, 노인일자리사업 '활바지락살' 시제품 출시

부안군은 최근 코로나19,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중단됐던 치도 수산물 가공공장이 위도면 치도마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12명과 함께 위도 활바지락살 생산을 시작으로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3~4월, 힐링의 섬 부안 위도에서는 봄철 특산물인 바지락 수확이 한창이다. 위도 바지락은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고 주변 오염원이 없는 청정갯벌 속에서 자란 자연산으로 살이 통통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1597년 명량해전을 치른 이순신 장군이 잠시 위도에 머물렀을 때 대접한 음식 중 하나로, 이순신 장군이 '진정 천하의 일미'라고 극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치도 활바지락살은 맛과 영양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또한 뛰어나다. HACCP 제조시설에서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 속에서 손질된 바지락은 꼼꼼한 세척으로 해감이 따로 필요 없다.

/부안=김석진기자

숲속의 삶, 삶속의 숲 정읍시 4월 5일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정읍시는 식목일을 기념해 오는 4월 5일 내장산 리조트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지에서 소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내장산 자연휴양림 내 임야(산 27번지) 1ha에 시목인 단풍나무 3년생 모목 1,000여본을 심는다. 시는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 친화적 생태·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나무 심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 많은 숲과 녹지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숲을 가꾸고 산업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외국인계절근로자 본격 투입

169명 영농철 농가에 배치... 이달 중 233명 순차적 입국 예정

정읍시는 지난 1월부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69명이 영농철 농가에 배치돼 본격적인 영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과 4촌 이내 친척 초청 159명, MOU협약 성실근로자 재입국 10명으로, 현재 67개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

또한, 4월 중 농가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2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을 위해 올해 1월 필리핀 마갈레스와 MOU협약을 확대 체결해 인력보

집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필리핀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통보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필리핀 근로자들의 도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예정대로 4월 초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는 장기 취업비자(E-8)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외국인 소용량농산물 운영, 산재보험료 농가 지원, 근로자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인 체류를 위한 농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주 사전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한 숙소현장 점검과 입국 후 마약검사, 불법체류 방지교육, 산재보험가입 등 농가와 외국인 교육을 병행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계절근로 제도는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이 올해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해 국내육성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관내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사진=고창군청 제공)

고창, 고품질 고구마 조직배양묘 공급

일반품종 대비 수확량 20% 많아

고창군이 올해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해 국내육성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관내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작년에 국내육성 고구마 조직배양묘 사전수요 조사를 통하여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수요량을 신청받았다.

사전에 신청받은 약 2만5,000주를 농가들의 희망 시기에 따라 5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고구마 3~4회 증식을 통해 고창군 관내 약 70ha에 식재할 수 있는 수량이다.

고구마 조직배양묘는 무균실에서 배양돼 식물체로 자라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병의 감염률이 낮다.

일반 품종에 비해 약 20% 정도 수

확량이 많고, 외관 품질도 좋아 고구마 재배 농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고창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국내육성 품종으로 소담미, 호풍미 2개 품종을 공급하고 있다.

소담미는 베니하루가 대체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맛과 상품성이 우수한 꺾고구마로 농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호풍미는 안노베니 대체품종으로 다수확 및 병에 강한 특성이 있는 호박고구마로 또한 농가들에게 인기가 많은 품종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외래품종을 대체한 국내육성 고구마와 고품질 고구마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창군 재배농가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튼튼한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미래먹거리 아이디어 쏟아졌다

'고창댐 건설'·'풍천장어 K푸드특구' 등 5건 선정

"기후위기에 대비한 고창의 물고기를 키울 중규모 다목적댐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미식 식재료인 '풍천장어'에 대한 국제 연구기관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 경진대회에서 신선한 발상과 특색있는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심석섭 군수가 주재한 '국가예산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다. 앞서 군은 고창군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9일간 총 35건의 사업 아이디어가 접수해 26일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11건을 선정했다. 11건의 아이디어는 심석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총 5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중규모 고창댐 건설사업' △쌀소비 증진을 위한 '쌀 소재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 △고창 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풍천장어 K-푸드 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대죽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힐링 아일랜드형 바다정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평가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이번 경진대회에 접수된 35건의 모든 아이디어를 군청 담당부서와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서 보완하고 경제성 등 사업화 방안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심석섭 고창군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을 내걸었다"며 "발굴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되어 고창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6종 추가 선정

오디발효액세트·노을초코파이 등 11개 업체 16종

부안군은 최근 2024년 제1차 부안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위원장 김홍우)를 열고 16종의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부안뽕갈비, 신동진 쌀, 참쌀, 흑찰보리, 신동진밤이보약, 무침가귀리선물세트, 잡곡선물세트, 백화고 선물세트, 진시황차, 오디청국장과피, 죽염장류세트, 오디발효액세트, 노을초코파이, 미네랄 칼슘소금, 부안패션쿠키스 2건 등 11개 업체 16종의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

부안군에 기부할 경우 다음달부터 앞서 선정된 답례품 70종을 포함해 총 86종 가운데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신규 답례품은 등록 절차를 거쳐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을 통해 오는 4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답례품 신규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29일부터 약 2주에 걸쳐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를 추진했으며, 지역 대표성, 가격의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해 부안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6개 상품을 추가로 선정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부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홍보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40개 업체 70종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기부자에게 제공한 결과 4,475건, 6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이는 목표 금액(5억원) 대비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샘고을 정다운 상권 디지털 전환

'카카오'와 협업... 상권 활력 및 경쟁력 제고 기대

정읍시가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샘고을 정다운 상권 디지털 전환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카카오가 추진한 '단골거리 디지털 전환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카카오톡 채널 등 최신 기술이 어려운 구도심 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카오에서 직접 찾아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과 온라인 소통 교육을 지원하는 카카오의 상생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다.

시는 카카오와 협력해 △상인회·점포 단위 특 채널 소통 교육 △개별 점포 특색 및 비즈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경험 확대 △상권 및 채널 활성화 위한 이벤트 지원 등을 통해 단골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상인조직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디지털 전환 사업을 통해 오프라인 방식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온라인 방식의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